

# 미국 입국하면 수수료 250불 부과

## 불법 체류·취업 안하는 보증금...시행시기·방법 미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효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으며,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여행협회 대변인은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세부사항이 부족해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질문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비자의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즉, 비자 발급 후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같은 비자 위반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성격의 수수료를 선납하게 하고, 비자 조건을 지키면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 ■ 최소 250달러...다른 수수료와 별도

이 수수료는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동안 최소 250달러로 책정될 예정이며,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더 높게 설정될 수도 있다.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된다.

비자 진실성 수수료는 관광객, 비즈니스 여행객, 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되며, 비자 발급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휴스턴의 이민 전문 로펌 레디 뉴만 브라운 PC의 파트너 스티븐 브라운 변호사는 "예를 들어, H-1B 비자 신청자는 기존 205달러의 신청 수수료에 더해 총 455달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I-94 양식 수수료도 기존 6달러에서 24달러로 인상했다.

### ■ 환급 조건과 절차 불명확

비자 통합 수수료는 비자 조건을 성실히 준수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허가되지 않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환급은 비자가 만료된 후 진행된다. 브라운 변호사는 "환급을 받으면 좋지만, 정부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며 "비자 통합 수수료를 사실상 환불 불가 수수료로 보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의회에산국(CBO)은 "비자가 수년간 유효한 경우가 많아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국무부가 환급 절차를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2025~2034년 동안 이 규정으로 289억 달러의 세수 증가와 재정 적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약 1억 2,000만 건의 비이민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040만 건 이상의 비이민 비자가 발급됐으며, CBO는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비자 체류 초과율이 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Form I-94(입출국 기록양식) 수수료가 기존 6달러에서 24달러로 인상되었다.

### ■ 시행 시기와 징수 방식 미정

현재 비자 통합 수수료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브라운 변호사는 "관련 규정 공포나 연방관보 공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여행협회도 "법안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국토안보부는 비자 신청이나 갱신 절차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 시점과 장소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 수수료 시행에는 여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 여행 비용 상승 우려

브라운 변호사는 특히 관광·비즈니스 비자(B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들이 이번 수수료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B 비자 소지자는 1인당 추가로 250달러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미국이 2026년 250주년 기념행사



'아메리카 250'과 FIFA 월드컵 일부 경기를 준비하는 시점에 맞물려 있다.

미국 여행 홍보기관인 브랜드 USA는 이번 법안으로 예산이 1억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대폭 삭감됐다. 미국여행협회 제프 프리먼 회장은 "인프라와 국경안전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방문객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수수료와 브랜드 USA 예산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CFRA 리서치의 선임 애널리스트 에나 가르시아는 "대부분의 국제 여행객과 비즈니스 여행객은 고소득층으로, 250달러는 전체 여행 비용 대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수요 위축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가르시아는 이번 수수료가 '여행 제한'보다는 '비자 규정 준수율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날말퍼즐 정답									
	1가		2우	3량	4주				
4나	부	랭	이		5간	6과			
들			7득	8려					
8이	9마		경		10책	보			
	11지	탕		12견		13호	14통		
	노		15요	리				조	
	16선	17물		18사	탕	19발	림		
		20주	치	의				주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 시간**

**OC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수요일 오전 10시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목요일 오전 10시

문의전화 T. (818) 404-0241

##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타주포함) 인컴텍스/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llo McF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KIM & CHOI**  
CPAs, P.C.

T. (714) 539-6444 | 12395 Lewis St. #20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0  
email: info@kimchoicpas.com